

5 자연이 이웃해 행복한 친환경도시 관악

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생태도시를 만듭니다.

저탄소 녹색성장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관악.
관악산과 도림천의 쾌적한 자연환경,
푸른숲, 맑은 공기, 깨끗한 하천이 잘 보존되고
역사와 문화가 어울려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
행복을 누리는 지속가능한 살맛나는 도시



1 화석에너지 사용절감, 도시농업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환경도시를 만듭니다.

- 태양광 에너지 사용의 지속적인 확대로 화석에너지 의존비중이 줄고, 도시농업 지원으로 도심 속의 작은 정원이 만들어집니다.
- 자투리 땅마다 한뼘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.

2 자원의 선순환적 리사이클링을 통해 환경을 보존합니다.

-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버려지는 빗물을 받아 재이용합니다.
- 재활용정거장 제도가 시행되어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합니다.

3 낙후되고 버려졌던 지역이 지역명소로 재생됩니다.

- 관악산 공원 문성지구가 녹지로 복원되어 주민의 휴식공간이 됩니다.
- 낙성대 폐기물 처리장을 놀이마당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께 돌려드립니다.

